작지만 알찬 문화공간 여기있소

헌책방 '아낌 없이 주는 나무' 월 1회 영화제·미술치료 강좌
찻집 '옷짓는 시인' 차와 시, 작품 감상 … 문학인들의 사랑방
카페 '카시오페아' 예술영화 상영·독서모임·아트 벼룩시장
클럽 '네버마인드' 매 주 인디밴드 공연에 독립영화 상영회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헌책방 '아낌 없이 주는 나무'에서는 매달 한차례씩 '별책부록 영화제'가 열린다. 광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역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난달 27일에는 나카무라 유키의 다큐멘터리 '아마추어의 반란'이 상영됐다.

헌책방, 카페, 클럽….작지만 알찬 문화 공간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아름다운 재단이 운영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저렴하게 책을 구입할 수 있는 헌책방이자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볼 수 있는 북카페이기도 하다.

화가 주홍씨는 이곳에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오는 5일부터(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6회 과정으로 스토리텔링 미술치료 프로그램 '컬러풀 마인드'를 연다. 매회 나무 도미노와 그림물감을 활용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면 주홍씨가 해석을 해준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입체 그림책을 만드는 프로그램인 셈이다. 회당 참가비는 1만원이며 재료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에 기부한다.

아름다운 재단이 운영하는 헌책방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지난해 열린 미술치료 프로그램 '컬러풀 마인드' 수업 모습.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제공〉

또 매주 마지막주 목요일에는 '나만의 책 만들기'가 열린다. 달력 등 폐지를 활용해 책표지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는 현재 전남대 독서클럽 등이 꾸준히 소모임을 열고 있으며 책방측은 문화 모임 활성화를 위해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 문의 062-514-8975.

또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전통 찻집 '옷짓는 시인'도 문학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이곳은 지난해 9월 광주전남작가회의 정영주 시인이 문을 연 곳이다.

손바느질 작품과 각종 다기 전시판매장을 겸한 찻집은 100㎡(30평) 넓이로 차와 시 그림을 감상하고 담소를 즐길 수 있게 꾸며져 있다. 초창기에는 이곳이 대체 뭐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하나 둘씩 찾았지만 입소문이 퍼져 '예술적 분위기'를 즐기고자 찾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

현재 인터넷 까페를 열고 정기모임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시화전이나 손바느질 공예품 전시회를 열어 문화예술공간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062-521-7010.

광주시 북구 운암동 서강정보대 인근에 자리잡은 카페 '카시오페아'는 다양한 예술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아트 카페'다.

매월 첫번째, 세번째 금요일에는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카모메 식당', '스왈로우 테일' 등의 영화를 상영했고 오는 5일과 19일에는 '똥파리'와 '렛미인'을 상영한다. 영화 상영 후에는 작은 연주회도 진행한다.

카시오페아에서는 현재 독서모임 '북 앤 미' 등이 정기적으로 독서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3월에는 사진 강좌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밖에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에는 '아트 벼룩시장'이 열린다. 일반인들이 책, 음반, 핸드메이드 소품 등을 서로 나누는 자리로 개인이 가져온 책과 음반 등을 카페에서 위탁판매하기도 한다. 문의 062-511-3558.

대인시장 건너편에 자리잡은 컬처 클럽 네버마인드에서는 매주 열리는 인디밴드 공연 이외에 독립영화 상영회를 열고 있다.

'안녕? 독립영화! 시즌2'라는 제목으로 매달 한차례씩 열리는 독립영화 상영회에서는 광주에서 미개봉된 독립장편다큐멘터리를 만날 수 있다. 2010 첫 프로그램은 태준식 감독의 '샘터분식'이었다. 문의 010-7171-009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서울·부산 작가 작품 한자리에

시립미술관 5일부터 지역네트워크전
서울 아르코·부산 시립미술관 협업
작가 21명 선정 지역 돌며 작품 소개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5일~3월14일 지역작가와 서울, 부산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지역네트워크'전을 연다. 서울 아르코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이 협업해 이들 지역을 돌며 젊은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다.

이들 미술관 큐레이터들이 각 지역을 중심으로 신진작가 5명~8명씩 각각 추천하고, 상호의견 조율을 통해 최종 21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광주 작가로는 김상연, 안태영, 정광희, 진시영씨가 참여했다. 이들 외에 김도희, 김무준, 로와정, 신성환, 이예린, 박상호, 송성진, 이광기씨 등 21명의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안태영씨는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실물에 가깝게 그려낸 사탕 연작을 선보인다. 이 작품은 할머니가 손자에게 건네준 사탕을 소재로 현대인이 잊고 살아가는 아련한 추억을 전해준다. 사탕 표면의 까칠한 느낌과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것 같은 단맛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안태영 작 '할머니가 주신 왕사탕'

또 정광희씨는 큰 붓으로 대담하게 그은 붓글씨를 회화의 범주로 승화시킨 작품을 선보인다. 동양화의 여백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돼 묘한 울림을 준다.

이 밖에 진시영씨는 영상 매체의 기술적 어법을 바탕으로 자연에 대한 감수성과 공간에 대한 기억을 보여주는 작품을 내놓는다. 문의 062-510-070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색으로 표현한 도심공간

기옥란 개인전 12일까지 조선대미술관

콘크리트로 대표되는 딱딱한 도심 이미지를 선과 면으로 표현하고 있는 서양화가 기옥란씨가 오는 12일까지 조선대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조선대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학위 청구전인 이번 전시에서 기씨는 도심 공간을 다양한 색으로 표현한 신작을 선보이다.

검은색과 회색 등 다소 어두운 색으로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의 일상을 형상화했고, 이를 치유하는 과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다.

전남대 사범대 미술교육학과 출신으로 제12회 미술세계 대상전에서 특선했다. 수요드로잉회, 자연사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30-783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익명의 도시'

소설가 송기숙 삶과 문학 조명

조은숙씨, 작가론·실증적 자료 담은 연구서 출간

대하소설 '녹두장군'으로 알려진 소설가 송기숙(전 전남대 교수·사진)씨의 삶과 문학세계를 조명한 '송기숙의 삶과 문학'(도서출판 역락 펴냄)이 출간됐다. 송기숙에 대한 작가론과 실증적 자료를 담은 본격적인 연구서다. 책은 지난해 '송기숙 소설에 나타나는 근대성-1970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로 박사학위를 받은 조은숙(전남대 시간강사)씨가 집필했다.

책은 총 2부로 구성했다.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한 1부에서는 소설가 송기숙의 생애를 문예적 시각에서 정리해, 그의 문학적 실천이 당대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어떻게 변모해 갔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2부는 필자와 작가와의 대담을 작가의 생애에 맞게 재구성했다. 총 7편으로 구성된 대담은 소설가 송기숙 고유의 말버릇 등 작가의 특성, 당시 분위기와 상황에 가깝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음성자료들 그대로 옮기는 채록문 형식을 띠고 있다.

1회부터 3회까지 작가의 생애를 중심으로 대담을 가졌으며 4회부터는 작가의 제안으로 '녹두장군', '길 아래서', '자랏골의 비가' 등 작품 배경지를 답사하며 필자와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다.

이외에도 부록으로 송기숙 연표, 소설·산문 목록, 송기숙 관련 연구목록을 실어 생애와 작품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시안갤러리 '2010 올해의 작가' 공모

시안갤러리는 지역 작가 육성을 위해 '2010 올해의 작가'를 공모한다.

광주·전남지역 출신 40세 이하 작가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응모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다. 신청자는 전시기획안과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한다.

모집 부문은 회화, 조각, 사진, 영상 미디어 등이며 심사를 통해 오는 3월 당선자를 발표한다.

당선자에게는 지원금 100만원과 시안갤러리 개인전 개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이후 시안갤러리의 단체전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시안갤러리는 그동안 10명의 작가를 선정해 창작을 지원해 줬다.

문의 062-570-233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